

## 크론병 치료중인 면역저하 상태의 COVID-19 환자에 대한 단클론항체 치료 1례

부산의료원 내과

임정균, 김동환

**서론:**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는 COVID-19로 인해 이환율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. 자연적인 체액성 면역과 같이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단클론항체는 COVID-19의 잠재적인 치료법으로 유망하다. 면역 저하 환자는 B 및 T 세포 면역의 결손으로 인해 단클론항체로부터 더 많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이에 우리는 크론병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치료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**증례:** 상기 환자는 67세 남자로 31년전 크론병으로 장절제술을 받은 후 증상 조절 위해 azathioprine, methylprednisolone 복용중 COVID-19 확진되어 입원 하였으며 동시에 크론병 약물들은 중단했다. 입원 중 크론병 증상악화로 입원6일부터 dexamethasone 투여 후 점진적 감량했다. 입원중 촬영한 Chest X-ray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(그림1. A, B) PCR Ct value 상승추세 확인 되었고,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20일만에 퇴원했다. 퇴원 후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 COVID-19 관련 특이 증상은 없으나 크론병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았으며 PCR 검사상 Ct value 점차 감소 하여 바이러스 부하 증가가 의심되어 재입원하였다. 두번째 입원 전후 촬영한 Chest X-ray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(그림1. C, D), 입원 후 단클론항체 regdanvimab 치료 받았고 면역억제 약물은 입원 한달 전 중지 했다. 재입원 6일째, 8일 째 COVID-19 PCR 상 · 하기도 2회 연속 음성 검사 결과로 퇴원하였다.

**고찰:** 바이러스 배양검사는 바이러스 부하를 측정하는 가장 믿을 만한 지표이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. 대신에 COVID-19 PCR검사의 Ct value는 바이러스 배양검사와 결과가 거의 같으며 바이러스 부하를 측정하는 유용한 검사방법이다. 상기 증례는 면역억제 상태에서 Ct value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으나 단클론항체 치료 후 COVID-19 PCR 검사상 음전된 경우이며(그림2.) 면역 억제 환자에서 단클론항체 치료를 했을 때 빠른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예비증거를 나타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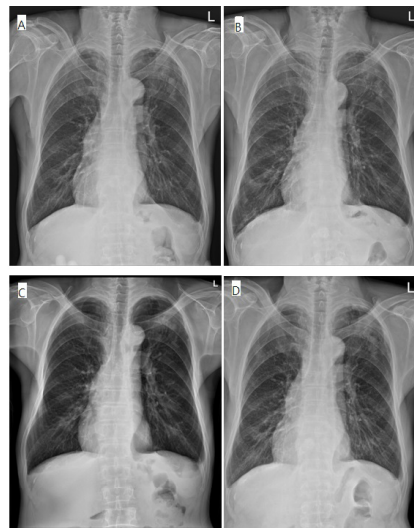


그림1. 각각 A. 1월 15일 B. 2월 1일 C. 5월 18일 D. 6월 14일 촬영한

Chest X-ray 로써 특이 소견 없었음



그림2. 첫번째 입원부터 5개월 지나 최종적으로 원치되기까지 Ct value 값의 추이 그래프이며 단클론항체 Regdanvimab 치료 후 음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.